

朝鮮刊《楚辭集註》簡說

(朝鮮時代刊行中國文學關係書研究 其四)

金 學 主*

一. 緒 論

《楚辭》는 朝鮮時代에 《文選》과 더불어 가장 여러번 刊行되었던 文學 作品 選集이다. 한편 그것은 《楚辭》가 文章敎本으로서 朝鮮 선비들에게 必讀의 책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중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楚辭》의 판본은 東漢 王逸(89?~158?)이 저운 《楚辭章句》 17卷本이다.¹⁾ 본시 《楚辭》란 책은 西漢의 劉向(B.C. 77?~B.C. 6)이 편찬했다고 하나, 王逸이 《章句》를 지어 屈原賦 25篇을 모두 「履忠被譖」한 憂國詩人의 작품으로 해설²⁾한 위에, 屈原을 追慕하는 宋末 이하 자신의 작품들도 收錄함으로써, 세상에서 존중을 받으면서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宋대에 이르러 洪興祖(1090~1155)가 《章句》에 대한 《補註》를 지었는데, 더욱 訓詁가 精密하여 이후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王逸의 注釋까지도 읽게 되었다.

그러나 朱熹(1130~1200)는 《章句》와 《補註》가 訓詁에는 매우 精細하

* 서울대 인문대 중문학과 교수

1) 《楚辭章句》의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明 正德戊寅(1518) 吳郡 黃省曾 繙刻古本과 隆慶 辛未(1571) 豫章 夫容館 覆宋本이며, 《補註》도 明代의 覆宋本(《四部叢刊》影印本, 波古閣 重刊本) 등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2) 班固는 “屈原, 露才揚己, 競乎危固羣小之間, 以離讒賊. 然責數懷王, 怨惡椒蘭, 愁神苦思, 強非其人, 忿懣不容, 沈江而死.”라 비판했고(《離騷序》) 顏之推는 “自古文人常陷輕謗, 屈原露才揚己, 顯暴君過.”(《顏代家訓》)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王逸 《章句》로 말미암아 그를 憂國詩人으로 보는 것이 正統的 견해처럼 되었다.

나 作者의 旨意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고서 이전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종합하여 《楚辭集註》 8卷을 썼다. 그리고 王逸과 洪興祖를 비롯한 이전 학자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별도로 《楚辭辨證》 上·下 2卷을 지었다. 다시 荀卿(B.C. 298? ~ B.C. 238?)의 〈成相〉으로부터 宋代 呂大臨(? ~ 1090?)의 〈擬招〉에 이르는 《楚辭》와 같은 系列의 歷代의 작품 52篇을 모아 《楚辭後語》 6卷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晁補之(1053~1110)가 王逸의 〈九思〉 一篇은 빼고 篇次를 改易한 다음 《重定楚辭》 16卷을 편찬하고, 다시 屈原의 작품과 비슷한 風格의 작품들 26人의 60篇을 모아 《續楚辭》 20卷, 또 屈原을 祖述한 작가로 荀卿 이하 宋代 작가들에 이르는 작품들 38人 96篇을 모아 《變楚辭》 20卷을 편찬하였었다. 朱熹는 晁補之의 《續楚辭》와 《變楚辭》의 選文이 글의 뜻보다도 修辭에 기울어졌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것들을 刪補하여 《楚辭後語》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어떻든 《楚辭集註》는 《詩經》에 있어서 傳統的인 注解書인 《毛詩正義》에 대한 그의 《詩集傳》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저술이다. 중국에 性理學이 盛行하면서 《楚辭》에 있어서도 王逸의 《章句》보다도 오히려 朱熹의 《集註》가 더욱 존중되고 널리 읽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後語》와 《辨證》은 대개의 경우 《集註》에 덧붙이어 刊行되었다.

朝鮮時代에는 이 朱熹의 《楚辭集註》만이 《後語》와 《辨證》을 뒤에 달고 거듭 刊行되었다. 朝鮮時代는 性理學의 全盛期였으니 《楚辭》가 《集註》爲主로 읽혔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二. 《楚辭章句》와 《集註》

《楚辭章句》에는 屈原의 〈離騷〉 이하 〈九歌〉·〈天問〉·〈九章〉·〈遠游〉·〈卜居〉·〈漁父〉와 宋玉의 〈九辯〉·〈招魂〉, 景差(屈原作이라고도 함)의 〈大招〉 및 漢代 賈誼의 〈惜誓〉, 淮南小山의 〈招隱士〉, 東方朔의 〈七諫〉,

嚴忌의 〈哀時命〉, 王褒의 〈九懷〉, 劉向의 〈九歎〉과 자신의 〈九思〉가 실려 있다. 그리고 〈離騷〉에는 經자를 덧붙이어 〈離騷經〉이라 題하고, 그 解題에서 “離, 別也; 騷, 愁也; 經, 徑也.”라 하면서 “屈原 자신이 임금에게 쫓겨나 離別을 하여 마음 속이 愁思로 찼으며 道徑에 의존하여 임금을 風諫함을 뜻한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³⁾ 王逸이 訓詁에 뛰어났으면서도 이러한 태도 때문에 후세까지도 《楚辭》를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儒家의 倫理教材처럼 읽도록 만드는 張本이 되었던 것이다. 洪興祖의 《補註》는 앞머리에 王逸의 註를 모두 적어놓고 뒤에 “補曰”하고 《章句》의 未盡한 점이나 잘못된 점 등을 補正하고 있어 읽기에 매우 편리하다.

朱熹의 《楚辭集註》에서는 卷1에서 卷5에 이르는 〈離騷〉·〈九歌〉·〈天問〉·〈九章〉·〈遠遊〉·〈卜居〉·〈漁父〉의 7題 25篇을 屈原의 작품이라 본 위에, 이것들을 아울러 《離騷》라 부르고 있다. 다시 卷6에서 卷8에 이르기까지는 宋玉·景差·賈誼·莊忌⁴⁾·淮南小山 등 屈原과 비슷한 風格의 작가들의 작품 8題 16篇을 모아놓고 《續離騷》라 부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章句》本과 크게 다른 점은 東方朔·王褒·劉向·王逸 등의 작품은 除外시킨 반면 賈誼의 작품으로 〈惜誓〉 이외에도 〈弔屈原〉과 〈服賦〉 두 篇을 더 넣고 있다는 점이다. 朱熹는 그 序文에서 스스로 王逸의 《章句》와 洪興祖의 《補註》는 訓詁와 名物에 있어서는 매우 자세하나 大義의 把握에 있어 不足한 점이 많다고 보고, 屈原의 뜻을 올바르게 밝히기 위하여 이 책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集註》는 이전의 注解書들에 비하여 義理에 뛰어남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다.

그 밖에도 〈離騷〉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의 뜻을 파악함에 있어 分章을 하고, 글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한편 글귀들의 韻을 추구하고 《毛

3) 본지 “經”은 책을 존경하는 뜻에서 덧붙여진 것일 것이나, 王逸은 마치 原題에 “經”자가 붙어 있었던 것처럼 〈離騷〉에 합쳐서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4) 莊忌가 《楚辭章句》本에는 嚴忌로 되어 있는데, 本姓이 莊이나 漢 明帝의 諱 때문에 嚴이라 고친 것이라 한다.

詩集傳》처럼 章마다 興比賦로 分章의 성격을 구분해 놓고 있다.

朱熹의 《集註》序文을 보면 屈原의 評價에 있어 王逸보다는 冷情해져서, 그의 作品이 “忠君愛國之誠心”에서 나왔고 “不能自己之至意”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變風變雅의 末流”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天性民彝之善”을 啓發하여 “三綱五典之重”을 말전시켜주는 것이어서 일반 “詞人之賦”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⁵⁾ 朱熹는 《楚辭》를 해설함에 있어 始終 이러한 大義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이다.

《辨證》에 대하여는 朱熹 스스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내가 王逸과 洪興祖의 《楚辭》註를 모아놓고 보니 그 訓詁와 文義 밖에도 몰라서는 되지 않을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글이 너무 빈잡해져서, 읽는 이들이 혹시 거기에 빠져 그 要然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이에 뒤에 달리 적어 參考할 수 있게 하는 바이다.”⁶⁾

그러나 《辨證》은 특히 《章句》와 《補註》에서 분제가 되는 부분을 뽑아 條目別로 자기 의견을 적어 上·下 두 권으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集註》와 함께 꼭 읽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楚辭後語》6卷은 앞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晁補之의 《續楚辭》20卷과 《變楚辭》20卷을 바탕으로 중국 歷代에 나온 《楚辭》系列의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든 《後語》는 辭藻보다도 內容을 중시하는 朱熹의 賦觀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賦의 최초 작가로 荀卿의 賦들

5) “竊嘗論之，原之爲人，其志行雖或過於中庸而不可以爲法，然皆出於忠君愛國之誠心。原之爲書，其辭旨雖或流於跌宕怪神，怨懟激發而不可以爲訓，然皆生於緼絳惻恒，不能自己之至意。雖其不知學於北方，以求馮公仲尼之道，而獨馳騁於變風變雅之末流，……然使世之放臣屏子怨妻去婦，投淚謳吟於下，而所天者幸而聽之，則於彼此之間，天性民彝之善，豈不足以交有所發，而增夫三綱五典之重？”

6) “余既集王洪騷注，顧其訓故之義之外，猶有不可不知者，然慮文字之太繁，覽者或沒溺而失其要也，別記於後以備參考。”

앞머리에 놓은 점, 〈易水歌〉에서 〈鴻鵠歌〉에 이르는 이른 바 “楚歌”들을 楚辭나 같은 系列의 詩歌로 보고 있는 점, 司馬相如·揚雄·張衡 등의 漢賦도 楚辭나 같은 성질의 작품들로 보고 收錄하고 있는 점⁷⁾ 등은 朱熹가 文學史에 대하여도 一家見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특히 屈原의 弟子라는 宋玉의 작품인 〈高唐賦〉·〈神女賦〉 등을 다 빼버리면서 그것들을 “禮法之罪人”이라 斷定하고 있는 것과⁸⁾, 揚雄을 “屈原之罪人”이라 단정하고 이 글은 “〈離騷〉의 讒賊이다”고 말하면서 〈反離騷〉를 싣고 있고⁹⁾, “文人之 無行함은 貴히 여길 것이 못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漢나라 息夫躬의 〈絕命詞〉를 싣고 있는 것¹⁰⁾ 등을 보며는, 朱熹가 文學에 있어서도 얼마나 倫理를 중시하였는가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唐대 古文運動을 主導한 韓愈의 작품 7篇과 柳宗元의 작품 9篇을 실은 외에, 李翱·王安石·蘇軾·黃庭堅 등의 작품을 싣고 끝머리를 張載와 呂大臨의 작품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楚辭觀도 基本的으로 性理學派의 文論과 같은 바탕 위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한다. 어떻든 그의 《楚辭後語》는 《楚辭》뿐만이 아니라 楚歌와 賦의 文學的인 性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朱熹의 文學觀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저술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賈誼의 〈弔屈原賦〉와 〈服賦〉가 目錄의 卷2 앞머리에 “並見〈續離騷〉”란 自注와 함께 보이나 本文은 收錄되지 않고 있다. 《集註》에 이 두 작품이 들어가 重複을 피하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本文을 收錄하지 않으면서도 구태여 目錄에 이것들을 남겨둔 것은 文學史上 賈誼가 楚辭와 漢賦의 架橋的인 위치에 놓여 있

7) 司馬相如의 〈長門賦〉·〈哀二世賦〉, 揚雄의 〈反離騷〉, 張衡의 〈思立賦〉 등이 실려 있다.

8) 《後語》序; “若〈高唐〉·〈神女〉·〈李姬〉·〈洛神〉之屬, 其詞若不可廢, 而皆棄不錄, 則以義裁之, 而斷其爲禮法之罪人也.”

9) 《後語》〈反離騷〉解題; “然則雄固爲屈原之罪人, 而此文乃〈離騷〉之讒賊矣.”

10) 《後語》〈絕命詞〉解題; “躬以利口作姦, 死不償責, 而此詞乃以發忠忘身, 號於上帝, 甚矣, 其欺天也! 特以其詞高古似賈誼, 故錄之而僅其本末如此, 又以見文人無行之不足貴云.”

다고 믿었기 때문인듯 하다.

三. 朝鮮刊本の 概況과 特徵

《楚辭集註》는 世宗朝 이래로 朝鮮時代に 無數히 刊行되었다. 서울大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 藏本단 정리해 보더라도 《後語》에 《辨證》까지 다 갖추어진 完整本이 7種이고, 零本으로 전하는 것 12種이 있다. 그 밖에 手抄本도 3種이나 있으니 朝鮮時代に 얼마나 《楚辭》가 널리 읽혔는 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版型으로 보면 木版本과 活字本 두 種類가 있으며, 活字本에는 戊申字本・改鑄甲寅字本・訓練都監字本・丁酉字本 등이 있다. 木版本도 제작기 刊行 時期와 版型에 차이가 있다.

奎章閣 所藏 木版本 一種만이 5冊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上・中・下 三冊이거나 元・亨・利・貞의 四冊으로 나뉘어 있다. 모두 앞서 리에 《楚辭集註》8卷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辨證》과 《後語》는 版本에 따라 앞뒤로 순서를 달리하고 있다. 곧 《辨證》과 《後語》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刊行 시기는 분명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대체로 世宗朝로부터 朝鮮末期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刊行되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楚辭集註》의 底本으로는 대부분이 “山陽 楊上林 校刊”이란 標題가 붙은 版本을 가장 많이 썼다. 楊上林이 어느 시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이 底本이 어느 시대 刊本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中國에서는 宋 理宗의 端平 乙未(1235) 刊 《楚辭集註》를 1953년에 人民文學社에서 影印하고 있는데¹¹⁾, 朝鮮刊本은 이와 內容上 큰 차이가 없으나 역시 그 底本은 오래된 좋은 版本이었다고 여겨진다. 端平刊本은 《集註》

11) 이것이 中國에 現傳하는 가장 오래된 版本인듯 하며, 뒤에 다시 中華書局과 日本 讀賣新聞社에서 이를 覆刊하고 있다.

뒤에 《辨證》이 먼저 나오고 뒤에 《後語》가 붙어 있다.

이 밖에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訓練都監字本에는¹²⁾ 《後語》의 序 뒤에 “建安 虞信亨宅重刊 至治辛酉 臘月 印行”이란 標記가 붙어 있다. 至治辛酉는 元 英宗의 元年(1321)이다. 訓練都監字로 印行한 《楚辭集註》의 底本에 적혀있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도 좋은 版本임에는 틀림없으나 朝鮮에는 이 《至治刊本》이 《楊上林校刊本》보다는 뒤늦게 들어온 것인듯 하다.

中國에는 보통 明刊本으로는 成化年間(1465~1487)에 나온 《吳氏刻本》과 시기가 분명치 않은 《閔氏刻本》이 가장 유행되었는데, 後者에는 《辨證》과 《後語》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清刊本으로는 光緒年間(1875~1908)에 元 《至正刊本》을 覆印한 《古逸叢書本》과 上海의 掃葉山房에서 낸 石印本 등이 있다.

대체로 刊行된 冊의 外觀이 精美함은 접어둔다 치더라도, 朝鮮時代에 刊行된 《楚辭集註》는 그 底本 자체가 중국의 近世에 유행한 판본들 보다는 훨씬 오래되고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四. 結 語

朝鮮時代에 刊行된 《楚辭》는 오직 朱熹의 《楚辭集註》(附 《辨證》·《後語》)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版型은 木版本과 活字本の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사용된 底本으로는 《楊上林校刊本》과 元 《至治刊本》의 두 가지가 있다. 朝鮮時代는 性理學이 盛行된 시대여서 朱熹는 모든 학자들의 尊崇의 대상이었으므로, 특히 그의 저술인 《楚辭集註》는 좋은

12) “貴692”로 분류되어 있는 訓練都監字本 3冊은, 제 1冊이 《楚辭》卷4~8이고, 제 2冊은 《楚辭》卷5~8이며, 제 3冊은 《楚辭後語》目錄·序와 卷1~4가 들어 있다. 제 1冊과 제 2冊의 내용이 중복되고, 版型도 두 종류가 같지 않으니 다른 두 가지 版本을 섞어놓은 것임이 분명하다. 이 밖에 “일산古3716~14”로 분류된 판본이 있다.

版本을 底本으로 삼아 공들여 刻印하였을 것이다. 明·淸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읽혀진 《楚辭集註》本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한 確信이 선다.

그리고 朝鮮時代 학자들은 오직 이 《集註》만을 가지고 《楚辭》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屈原의 작품을 “履忠被讒”한 憂國詩人の 글로 보아온 中國人들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楚辭》를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책은 朝鮮學者들로 하여금 文學에 있어서 倫理와 道義를 보다 중시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